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귀 기울이고
구민과 함께하는

성동구의회

성동구의회

“교통체증 금호사거리” 5분 자유발언

제 9대 성동구의원
엄 경 석

금호사거리 현장 사진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좌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들

사진촬영일: 2023년 1월 16일 오전 8시경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관련 민원

- ✓ 2012. 08. 31. 금호사거리~금호역 정체
- ✓ 2016. 09. 12. 금호사거리 교통대책
- ✓ 2017. 10. 08. 금호역에서 금남시장거리
- ✓ 2018. 06. 06. 금호사거리 교통정체 해결요청
- ✓ 2018. 09. 07. 금호사거리 신호체계 개선의견
- ✓ 2021. 04. 29. 금호로 정체 관련
- ✓ 2022. 07. 04. 금호사거리 교통체증 문제
- ✓ 2022. 10. 13. 금호사거리 교통정리, 잦은 꼬리물기
금호사거리는 통제 불능

자료: 구청장에게 바란다 목록 (sd.go.kr)에서 발췌(검색일: 2023년 1월 13일)

제목	[공개]금호사거리 교통정체 해결 요청
등록일	2018.03.06 11:14
내용	<p>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민원사항 하나 직접 제기하려고 합니다.</p> <p>민원을 제기하는 의견은 난계로(레이안금호하이브리드)부터 금호사거리를 지나 금호로까지의 아침마다 <u>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교통정체에 대한 내용입니다.</u></p> <p>사진은 금일 오전 8시 20분부터 24분까지 찍은 것이며 보시는 것과 같이 정체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이 구간의 교통정체가 심각해 진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금호15구역과 20구역의 개발이 완료되어 아파트 입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p> <p>따라서 1300세대의 15구역과 600세대의 20구역이 동시에 입주하게 되면 이 구간의 정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u>금호사거리의 교차현상입니다.</u> 신호체계가 연동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막힐 뿐만 아니라 서로 뒤엉키기 때문에 이곳에서 교차현상이 잦습니다. 따라서 레이안금호하이브리드에서 서울숲푸르지오2차까지 차로 이동하는 시간보다 도보로 가는 시간이 더 빠릅니다.</p> <p>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었으면 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근 지구대의 도움으로 평일 아침마다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미봉책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도로를 정비하거나 혹은 전에 제가 건의했던 우이신설선을 옥수역까지 연장하는 방안등을 통하여 상습 교통정체구간을 <u>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u></p> <p>특히 성동교차거리부터 금호사거리를 지나 금호로까지 이어지는 이 길에는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들이 2차선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통 지옥을 만드는 꼴입니다. 따라서 교통수단의 다각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p>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교통정체, 서로 뒤엉키기
 때문에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교통정리는
미봉책, **답이 없다.**
 교통정체구간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귀 기울이고
구민과 함께하는

성동구의회

성동구의회

“교통체증 금호사거리” 5분 자유발언



제9대 성동구의원
엄 경 석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